

2026년 4월 싱가포르 관광 동향 보고

2026년 4월 / 싱가포르지사

□ 주요 관광 통계

○ (싱가포르 인바운드) 2026년 3월 : 143만 명 (전년 3월 대비 10%↑)

- (평균 체류일) 3.31일(전년 3월 대비 4.5%↓)

* 2026년 3월 방문객 수 상위 3개국

: 1위 인니(24만 명), 2위 중국(21만 명), 3위 말레이시아(13만 명)...11위 한국(3.7만 명)

* 전년 3월 대비 방문객 증가율 상위 3개국

: 1위 말레이시아(26.6%↑), 2위 인니(22.7%↑), 3위 대만(22.5%↑)

* 출처: 싱가포르 통계청(stan.stb.gov.sg)

○ (싱가포르 아웃바운드) 2026년 3월 : 94.4만 명 (전년 3월 대비 5.6%↑)

* 항공 이용 79.2만 명(전년 3월 대비 5.9%↑), 해상 이용 15.2만 명(전년 3월 대비 4.1%↑)

* 국가별 목적지 확인 불가, 2026년 3월 방한 싱가포르인 약 4.1만 명(전년 3월 대비 11.9%↑)으로 전체 방한 국가 중 방문객 수 9위

* 출처: 싱가포르 통계청(tablebuilder.singstat.gov.sg), 한국관광데이터랩(datalab.visitkorea.or.kr)

□ 주요 관광동향 및 정책

○ '26년 1분기 싱가포르 방문객 443만 명으로 전년 대비 2.7% 증가

- '26년 1분기 싱가포르 외래 방문객은 443만 명으로 전년 대비 2.8% 증가 하였으며, 숙박 방문객은 326만 명으로 2.7% 증가함

- '26년 1분기 창이공항 방문객은 총 1,76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.3% 증가하였으나, 중동 노선은 전년 동기 대비 80% 감소

- 싱가포르관광청(STB)은 '26년 연간 방문객 1,700~1,800만 명, 관광수입 SGD310~325억(약 34.1~35.8조 원) 전망

○ 싱가포르관광청-인도네시아 시푸트라그룹,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(4. 9.)

- 싱가포르관광청(STB)은 인도네시아의 시푸트라그룹*과 '26년 4월부터 1년간 전략적 협력을 체결하여 인도네시아 방문객 수 및 소비 증대를 목표로 함

- 시푸트라그룹의 부동산 네트워크를 활용해 입주민, 이용자 대상으로 홍보를 전개하며, 교육과 생활 방식이 결합된 통합 환경 조성에 주력
- * 시푸트라그룹(Ciputra Group)은 인도네시아의 선도적인 대형 부동산 개발 그룹으로, 현지 37개 이상의 도시에서 주거·상업·교육 등 광범위한 부동산 및 소비자 네트워크 보유함.

□ 항공 및 기타

○ 싱가포르항공, 미-이란 갈등으로 중동 노선 전면 중단(~6. 1.)

- 미-이란 갈등 발발 이후 싱가포르항공(SIA)의 싱가포르-두바이 노선이 최소 6. 1.까지 운항 중단되었으며, 싱가포르-리야드(사우디아라비아) 신규 취항도 9. 1.로 연기됨
- 유럽행 항공편은 걸프 지역 우회로 인해 비행시간 및 연료비가 증가하는 추세임

○ 싱가포르 민간항공청, 지속가능항공연료 할증료 시행 10월로 연기(10. 1.~)

- 싱가포르 민간항공청(CAAS)은 중동 분쟁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항공연료(SAF)* 할증료 시행을 연기함. 당초 '26년 4. 1. 판매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, '26년 10. 1. 판매분('27년 1. 1. 출발편)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함

* SAF(Sustainable Aviation Fuel):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배출을 줄인 지속가능항공연료

○ 싱가포르발 항공편에 보조 배터리 기내반입 2개 제한 규정 시행

- 4. 15.부터 싱가포르 출발 항공편의 보조 배터리 기내반입이 1인당 최대 2개로 제한되며, 초과분은 탑승 전 폐기해야 함
-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가 4월 2일 발표한 위험물 안전 운송 기술지침에 따른 조치임

○ 창이공항, 프라이빗 터미널 리뉴얼 및 라이프스타일 허브 확장 발표(4. 15.)

- 창이공항그룹(CAG)과 플라자프리미엄그룹(PPG)은 제2터미널 남쪽에 위치한 기존 귀빈전용 터미널 부지에 5,000m² 규모의 새로운 귀빈 전용 공간 건설을 위한 착공식 개최

* 플라자프리미엄그룹(Plaza Premium Group)은 글로벌 공항 라운지 운영 기업

- '27년 중반 개장을 목표로 하는 귀빈 공간은 고급 라운지, 바, 개인용 스위트, 전용 다이닝 및 이벤트 공간을 갖추어 프리미엄 여행객에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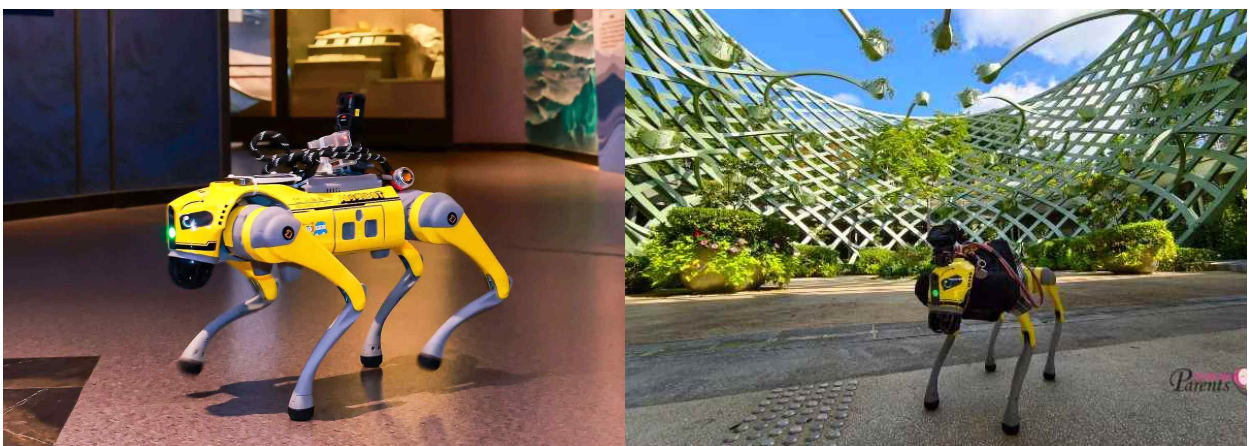
최적화된 맞춤형 경험을 제공할 예정임

- 이번 재개발은 인근에 들어설 호텔 인디고와 제2터미널과의 접근성을 활용해, 해당 구역을 여행과 휴식이 결합된 복합 생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주력함



○ 싱가포르관광청, AI 로봇독 가이드 센토사·만다이 야생동물보호구역 시범 운영(4.17~)

- 싱가포르관광청(STB)은 중국 여행 플랫폼 마핑위와 협력하여 AI 기반 다국어 로봇독 가이드를 센토사 및 만다이 야생동물보호구역에서 4월 17일부터 1개월 간 시범 운영함
- * 마핑위는 중국 최대의 여행 플랫폼으로, AI기술을 결합해 중국인 여행객에게 혁신적인 여행 정보와 맞춤형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임.
- 로봇독 가이드는 영어와 중국어 대응이 가능하며, AI 기술과 마핑위의 여행 콘텐츠를 결합한 맞춤형 스토리텔링 및 실시간 안내를 제공함



※ (출처) The Straits Times 등 싱가포르 현지 언론 종합

(주요 관광 통계)

<https://stan.stb.gov.sg/public/sense/app/877a079c-e05f-4871-8d87-8e6cc1963b02/sheet/3df3802e-2e5b-4c79-950d-d7265c4c07a9/state/analysis>

<https://tablebuilder.singstat.gov.sg>

<https://datalab.visitkorea.or.kr/datalab/portal/nat/getForTourForm.do>

(주요 관광동향 및 정책)

- '26년 1분기 싱가포르 방문객 443만 명으로 전년 대비 2.7% 증가

<https://focusgn.com/asia-pacific/singapore-visitor-arrivals-up-2-8-in-q1>

<https://www.asiaone.com/singapore/changi-airport-q1-2026-passenger-cargo-demand>

- 싱가포르관광청-시푸트라그룹, 인도네시아 관광객 유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(4. 9.)

<https://ciputradevelopment.com/news/singapore-tourism-board-partners-with-ciputra-group/>

(항공 및 기타)

- 싱가포르항공, 미-이란 갈등으로 중동 노선 전면 중단(~6. 1.)

<https://www.asiaone.com/lifestyle/singapore-airlines-flight-status-april-2026-routes-schedule-and-flights-resumption>

- 민간항공청, 지속가능항공연료 할증료 시행 10월로 연기(10. 1.~)

<https://www.straitstimes.com/singapore/transport/green-jet-fuel-levy-postponed-due-to-impact-of-middle-east-war-caas>

- 싱가포르발 항공편에 보조 배터리 기내반입 2개 제한 규정 시행

<https://www.caas.gov.sg/who-we-are/newsroom/Detail/new-power-bank-safety-restrictions-to-be-implemented-on-flights-departing-singapore>

- 창이공항, 프라이빗 터미널 리뉴얼 및 라이프스타일 허브 확장 발표(4. 15.)

<https://nowboarding.changiairport.com/discover-changi/changi-airport-new-private-terminal.html>

- 싱가포르관광청, AI 로봇독 가이드 센토사·만다이 야생동물보호구역 시범 운영(4. 17.~)

<https://www.stb.gov.sg/about-stb/media-publications/media-centre/singapore-tourism-board-launches-ai-powered-robotdog-guides-at-sentosa-and-the-mandai-wildlife-reserve-in-partnership-with-mafengwo/>